

## 욥기

**모임 15: 욥기 19:25--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욥기 19:25입니다.

**서론: 욥기 19.25 [00:23-2:02]**

19장의 중간에 있는 욥의 연설에서 빌닷에 대한 응답은 욥기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NIV로 번역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겨진 후에 내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내 눈으로 그를 보고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리고 물론 이 구절들은 Handel의 Messiah와 “I Know My Redeemer Lives” 라는 멋진 노래 때문에 매우 친숙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썄, 그것을 통해 작업하자.

우선, 욥이 자신의 법적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지나간 많은 언급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변할 사람, 그의 사건을 맡아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변호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시사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욥이 이 위치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책에는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옹의 역할을 맡을 누군가의 같은 종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옹호자 = 옹의 외침의 의인화 보기[2:02-2:44]**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옹은 어떤 종류의 옹호자를 찾고 있으며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그는 이 옹호가 어디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까? 훌륭한 해설인 DJ Cline의 해설은 옹호자를 비인격적으로 옹의 순진함의 외침을 의인화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외침 자체가 그 소리를 내는 목소리 없이도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버렸을 때 그것이 그의 변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Advocate [ *goel* ] = 하나님 또는 인간의 상대적인 관점[2:44-3:49]**

두 번째 견해는 좀 더 전통적이며 매우 일반적인 견해로, 하나님이 옹호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중재자는 당사자, 특히 불의로 고발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에 대한 변호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변자 역할이 인간 친척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며 *고엘*은 히브리 사회의 씨족 내에서 특별한 법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권리를

옹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친척이라는 생각은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친척들은 그를 버렸다. 따라서 그가 그러한 계급의 옹호자를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옹호자 [ 고엘 ] = 엘리후 보기 [3:49-4:14]**

나중에 우리가 엘리후의 연설에 이르면 엘리후는 자신을 변호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것처럼 그는 자신에 대해 높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되지만 그는 자신을 투사하지만 옹과는 다른 종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입증을 그 결과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옹이 찾고 있는

*고엘 이 아닙니다.*

### **옹호자 [ goel ] = 신성한 위원회의 구성원 [4:14-6:49]**

내 생각에 가장 가능성 있는 선택은 옹이 신성한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옹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결정이 내려지는 하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옹기 33장 23절과 24절에서 엘리후가 언급한 선택입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기본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5:1과 22:2, 3에서 엘리바스가 일찍이 버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이론적인 가능성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22장 2절과 3절에 나는 그것에 대한 재번역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어려운 두 개의 구절을 번역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내 해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중보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보자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좋게 여기시겠느냐 당신의 길.” 그것이 엘리파스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여기에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전체 옵션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이 자신을 돕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변호인이나 중재자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 천상의 궁정의 일원이었을 때 그가 천국의 광경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도전자라는 옹호자가 이미 참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었고 그것이 욥을 이 문제에 빠뜨렸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도 이길 수 없었다. 만일 욥이 하나님에 대해 옳고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숭배받을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전략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 구속자[ *goel* ]는 예수가 아니다[6:49-8:01]

그래서 여기 욥기 19장 25절부터 27장까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번역본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것을 볼 때 그들은 구속자가 예수라고 가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문자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 작품이지만 우리의 해석 지침은 아닙니다.

욥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그가 원하는 옹호자입니까? 어떤 신약성경 저자도 19장에서 예수님과 욥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욥 자체의 맥락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약성경 구절이나 저자도 우리에게 확대되고 보충된 해석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엘**의 역할은 용서가 아닌 입증입니다 [옹호자/구속자] [8:01-10:34]

고엘 은 구속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고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이 연루된 경우 **고엘**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행해진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고엘은 *사람*에게

행해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이 행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고엘 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찾는 역할이 아닙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할 대언자, *고엘 이자 구속자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범죄에서 그를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를 인정하면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자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엘이 살아 있음* 을 확신합니다 . “나는 내 *고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욥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동사는 자신의 간증을 제공하기 위해 문학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그는 *고엘이* 자신의 배설물 더미에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옹호자가 여기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는** [10:34-12:27]

따라서 “내 가족이 벗겨진 후에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개념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욥이 부활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사후에 입증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든 변명하리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욥이 마지막 순간에 유예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가 “내 살갓이 벗겨진 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살갓을 긁어내듯이 자신의 살갓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내 육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부가 사라졌지만 그것은 과장입니다. 그는 그것을 긁어모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가족/살이 아주 잘 다듬어졌습니다. 욥은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더 이상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약 의역** [12:27-13:08]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의역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바로 여기 내 배설물 더미에서 나를 대신하여 증언할 누군가가, 아마도 신성한 의회에서 온 것이지만 불특정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벗겨진 피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의 호의를 회복하고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그건 그렇고, 변영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욥의 확인: 용서가 아니라 옹호 [13:08-14:03]**

이것은 욥의 입장에서 중요한 확인입니다. 구세주를 예수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지만 여기서 욥이 찾고 있는 구속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자신을 의롭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당화가 아니라 입증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옹호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할과 정반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엘이 아니다 [14:03-14:58]**

욥기에서 예수님을 *고엘*로 보는 것은 욥기의 해석을 왜곡시키는 요소이며 욥의 소망과 소망의 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깨어짐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이시기는 하지만 욕기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중재하지만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나 인생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기가 하는 일이며, 우리는 욕기가 페이지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5회기입니다.

욕기 19.25.

[14:58]